

프랑스 관광시장 동향 (10월)

'26. 10. 28 (수) / 파리지사

□ 프랑스 관광 소비자 동향

○ (여행소비) 여행사 판매 부진 지속, 목적지별 수요 차별화

- 프랑스 여행업협회(Entreprises du Voyage), Orchestra의 조사에 따르면, '26년 9월 출발 기준 여행사 예약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.5% 감소함. 8월(-9.3%)보다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, 여름 성수기 이후에도 여행사를 통한 여행소비 회복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.
- 목적지별로는 프랑스 국내 예약건수가 전년 대비 9.1% 감소한 반면 스페인은 1.7% 증가함. 튀니지(-6.2%), 포르투갈(-20.8%), 튀르키예(-22.4%), 미국(-34.6%) 등은 감소하여 목적지에 따른 판매실적 차이가 나타남.

○ (여행목적지) 북아프리카·남유럽 및 태국 등 온난지역 항공권 검색 증가

- 프랑스 항공권 판매 플랫폼(Bourse des Vols) 9월 검색자료에 따르면, 프랑스 출발 항공권 검색량은 전년 대비 마라케시 40%, 튀니스 34%, 팔마데마요르카 199%, 방콕 17% 증가함. 북아프리카·남유럽 목적지와 함께 아시아 목적지인 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가을 만성절(Toussaint) 기간에는 마라케시가 항공권 검색 1위를 기록했으며, 방콕도 상위권에 포함됨.

□ 프랑스 관광산업 및 정책 동향

○ (관광업계 피해 및 지원) 10월 시위 관련 관광시설 피해 발생, 정부 지원대책 발표

- 10.17일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수반된 폭력·약탈로 여행사와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에 피해가 발생함. 프랑스 대형 체인 여행사

(Selectour/Havas Voyages)는 파리·낭트·리옹·보르도 등에서 약 15개 여행사가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. 리옹 관광안내소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함.

- 프랑스 정부는 일부 지역 야간 통행금지와 치안인력 증원 등 대응 조치와 함께 부분실업 지원, 세금·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및 피해기업 지원기금 조성을 발표함. 국가 지원기금은 직원 50명 미만 기업 중 상당한 물적 피해와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원할 방침임.
- 파리 및 인근 일드프랑스 지역은 별도 긴급지원기금에 1,000만 유로(한화 약 148억 원), 파리 시는 300만 유로(한화 약 44억 원)를 지원할 예정임. 파리는 피해 상점당 2,500유로(한화 약 370만 원)를 지원하고, 지역·상공회의소 지원을 합해 최대 11,000유로(한화 약 1,628만 원)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발표함.

○ (관광기업지원) 관광산업 금융지원 및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

- 프랑스 공공투자은행(Bpifrance)은 10.8일 발표를 통해 '21년 이후 약 6만 개 관광기업에 총 120억 유로(한화 약 17조 7,653억 원)를 지원했다고 밝힘. 숙박·외식·여행·레저 등 관광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대출·보증·투자·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기업의 성장과 친환경·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.
- 또한 숙박·외식·여행·레저·관광기술 분야의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관광기업 경영자 협력 네트워크(La French Expérience)를 출범함. 프랑스 전역에서 교류행사와 연구자료 발표, 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진행하여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, 친환경·디지털 전환, 고객경험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.

○ (관광인프라) '30년 동계올림픽 대비 리옹공항 시설 개선 추진

- 리옹 생텍쥐페리공항은 '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·패럴림픽 개최에 대비해 7,500만 유로(한화 약 1,110억 원) 규모의 시설 개선 투자를 추진함. 10.16일 제2터미널 개편에 착수했으며, 국제선 방문객과 선수단·행사 관계자의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 처리 및 서비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둠.

○ (문화관광) 고성 공동 프로그램과 통합 할인으로 겨울철 지역 관광 유도

- 프랑스 중부 루아르 투렌 지역은 '26.11.28~'27.1.3일 앙부아즈·슈농소·시농·빌랑드리 등 7개 고성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관광 프로그램(Noël au Pays des Châteaux)을 운영할 예정임. 각 고성은 서로 다른 장식과 체험 프로그램, 야간 관람 등을 제공하여 문화유산 관람과 계절행사를 결합함. 특히 행사 10주년을 맞아 3개 이상 참여시설 방문 시 할인받을 수 있는 공동 패스를 운영할 예정임. 개별 관광시설을 지역 단위의 연계상품으로 구성하여 복수 관광지 방문과 겨울 비수기 관광수요를 유도함.

○ (MICE) 숙박형 세미나 비중 증가 및 지속가능성 평가 중요성 확대

- 프랑스 MICE 예약 플랫폼(Kactus)의 '25년 대기업 행사 3,500건 이상 분석에 따르면, 숙박형 세미나는 전체 기업행사의 35%로 '23년 30%에서 증가했으며 전체 행사예산의 51%를 차지함. 회의와 숙박을 결합한 기업행사가 MICE 시장에서 주요 상품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.
- 기업은 행사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뿐 아니라 품질, 운영역량, 혁신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(RSE)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 친환경 운영방침과 탄소배출 관련 정보가 구매요건으로 강조되면서, 장거리 MICE 목적지도 숙박·교통·현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□ 프랑스 아웃바운드 항공 동향

○ (항공) 장거리 노선 운항 조정 및 지역공항 직항 확대 추진

- (미국) 에어프랑스는 10.10일부터 '26~'27년 동계시즌 파리 샤를드골 - 덴버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함. 기존 주 3회 운항하던 계절노선의 공급을 다른 북미 노선으로 재배치할 계획임.
- (미국) 마르세유 프로방스공항은 미국·과들루프 등 장거리 직항노선 확대를 추진함. 파리 경유 없이 프랑스 남부에서 장거리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망을 강화하고자 함.
- (태국) 타이항공은 12.1일부터 파리 샤를드골 - 방콕 노선을 하루 2회로 증편한다고 발표함. 기존 오전(12:30) 출발편에 저녁 출발편(21:20)을 추가해 직항 공급과 환승 선택지를 확대할 예정임. 또한 유럽시장을 고부가가치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시장으로 설정하고, '27년부터 객실 개편 등 서비스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임.

※ 출처: 프랑스 정부(info.Gouv.fr), 프랑스 경제부(Ministère de l'Économie et des Finances), 파리시청(Ville de Paris), 파리관광공사(Paris je t'aime), 주요 프랑스 관광정보지(L'Écho touristique, Tourmag, BpiFrance, Deplacement Pro 등) 참조